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조재현

제3회 DMZ영화제를 준비하며

지난번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을 맡아 동분서주하고 있는 배우 유지태를 소개한 김에 영화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려 한다. 내가 집행위원장을 맡아 이끌고는 있지만 영화제의 방향과 주제, 그리고 상영되는 영화는 아무리 많은 사람과 되풀이해서 말을 나누어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회 영화제 때의 일이다. '저 달이 차기 전에'라는 작품이 상영되고 감독과 관객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다. '저 달이 차기 전에'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파업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현 정부 들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이 다룬 소재는 상당히 민감했다.

실무진이 상영작들을 정해 보고했을 때 이 작품뿐만 아니라 용산사태를 다룬 작품까지, 정부와 경기도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는 영화들이 여러 편이어서 솔직히 적잖이 걱정이 되었다. 영화제가 경기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나로서는 당연한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그날 관객과의 대화를 지켜보고 나서 나의 걱정은 순전한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 어른들의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던 중간에 한 남자 고교생이 손을 들고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너무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났다. 하지만 지나치게 노동자의 입장만 대변한 것은 아닌가? 사측의 입장이 어땠는지도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질문 하나에, 그리고 그 질문에 반응하는 다른 관객들의 모습에 나는 내가 영화제를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원칙이 여전히 올바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을 아끼지 않되 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문화 행위로서의 영화 창작과 그 행위의 결과물이 소개되는 장으로서의 영화제, 이 모두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한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는 영화제 시작 전 이미 경기도와 공유한 것이기도 하거니와 실제 한 사회의 문화가 융성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사회의 주류 질서는 잘 갖추어진 기존의 체계에 흠집을 내고 침입해 들어오는 비판의 목소리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항원과 항체가 만나 다투는 과정에서 한 유기체가 더 건강한 체질로 발전하듯, 사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쌍용차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사회의 주류 의견에 대한 반론이고, 이 어린 관객의 질문은 그 반론에 대한 또 다른 문제제기이다. 다양한 시선이 거리낌없이 주장되고 이들이 한데 어울려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고 문화 진흥의 밑바탕이 된다. 내가 영화제라는 장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목소리들이 한데 어울려 백가쟁명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소통'이라고 부른다. 춘추시대 중국 고대의 대표적 사상과 철학들이 쏟아져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어차피 항체와의 접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항체에 노출된 기회가 없는 사회는 오히려 허약해진다.

민주주의는 나의 주장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을 먹고 자란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내 주장을 스스럼없이 펼치는 과정에서 사회는 성숙되고 문화는 풍성해지는 것이다. 나와 다른 시선을 부정하는 순간 사회는 뼈만 남고 문화는 시들어간다. 건전하고 정당한 시선은 누군가가 규정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견이 충돌하며 수렴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던가. 나는 비판과 수용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인간의 이성을 믿는다.

내친김에 올해 DMZ영화제의 홍보영상(보통 '트레일러'라고 불린다)을 맡은 일본의 세계적 감독 사카모토 준지의 이야기를 덧붙여볼까 한다. 영화 'KT'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카모토 감독은 처음 제안을 받고 흔쾌히 승낙했지만, 제작비가 1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잠시 고민했다고 한다. 하지만 약속은 중요하고 DMZ영화제의 의미를 잘 알기에 원래대로 제작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물론 100만 원은 100만엔(한화 약 천만 원)을 잘못 전해 들어서 생긴 오해이지만, 사실 천만 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는 하다.

사카모토 감독이 한국을 방문한 뒤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영화를 하는 이유이다." 어림없는 제작비로도 기꺼이 영상 제작을 수락한 것이 그지없이 고맙기도 하거니와, 그가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시 한 번 DMZ영화제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한다. 이제 정확히 100일이 남은 영화제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인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지역 국회의원 정보 공개 꺼리는 이유 뭔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18대 총선 공약이행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는 정치의 요체가 신뢰와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크게 실망스럽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8대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19명에게 공약이행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결과 9명(47.4%)만이 자료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평균 52.74%(237명 중 12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16개 광역단체장(100%) 및 214개 기초단체장(96.26%)과는 크게 비교된다.

선거 공약은 주민과 약속한 '공적 계약'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공약이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본 책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가 자신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일은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난 국회의원의 자질과 역량은 다음 선거의 선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보공개 거부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지역민을 얕보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오리발 정치'의 전형이다.

의정활동의 투명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지역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불신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총선 공약이행정보를 충실히 공개해 지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지역민과의 사이에 괴리만 커지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역 정치인과 지역민 사이의 불신은 지역발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투명한 정보공개는 정치인 개인의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

영산강사업 장마철 대비 철저히 해야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산강 살리기 공사가 막바지 급피치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취약지역에 대한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제방 붕괴와 유실, 지천으로의 역류 등 홍수피해가 우려된다.

14일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유선호 의원 등이 영산강 살리기 건설현장을 찾아 장마철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직까지 취약지역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영산강 본류와 승천보 등은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보니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1일 영산강 6공구 승천보에서 호우로 물이 불어나면서 물막이가 붕괴되고 수도관로가 파손돼 인근 마을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 사고도 무리한 공사와 안전 불감증이 빚은 합작품이었다. 100mm의 비에도 이런 피해가 발생했으니 집중호우라도 내리면 무슨 사고가 터질지 모를 일이다.

특히 승촌보가 시우량 110mm까지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됐다고는 하나 만일 이보다 많은 호우가 쏟아진다면 홍수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영산강 본류와 지류의 유속과 유량도 걱정거리다. 본류는 보(洑)를 설치하면서 낙차에 의해 유속이 빨라지고 직강화로 유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측돼 제방 붕괴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지류 역시 준설공사로 유속이 빨라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라지만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취약지역에 대한 공사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 보와 준설현장을 점검해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장마철 영산강 살리기가 아닌 '죽이기'가 된다면 4대강 사업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의료 칼럼

강직성 척추염

박용욱

젊은 나이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단순 허리디스크나 요통으로 여기기 쉽다. 하지만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뻣뻣해지다가 오후가 되면서 나아지면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야 한다.

강직성 척추염은 우리 몸의 면역 담당 기관의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초기에는 엉덩이 관절이나 무릎관절이 아프면서 관절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을 보이며, 발뒤꿈치의 아킬레스건에서 염증이 시작돼 발뒤꿈치가 아픈 증상으로 시작된다.

증상이 악화될 시 척추 전체가 변형돼 목이나 허리가 구부러지고 사소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길 수 있으며, 병에 걸린 환자의 약 3분의 1 정도는 수십 년에 걸쳐서 척추가 대나무처럼 굳게 되기도 한다. 또한 강직성 척추염은 전신질환으로, 척추나 관절 이외에 합병증으로 눈이 충혈되고 아프면서 시력이 일시 감퇴하는 포도막염이나 심장질환과 폐질환이 생기기도 한다.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20~30대 남성들에게 발병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2~3배 정도 흔하게 발병한다. 직장이나 군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남성들에게 발병하는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

이 병을 완치시키는 약물은 아직 없다. 하지만 약물요법과 운동요법을 병행해 꾸준히 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증상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약물치료로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와 항류마티스약제, 생물학적제제인 TNF-α 억제제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TNF-α 억제제가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의 치료에 널리 쓰이는 추세다. 에타너셉트(엔브렐), 아달리무맙(휴미라), 인플릭시맙(레미케이드)이 대표적인 TNF-α억제제다. 이 중 에타너셉트는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리셉터 형태의 약물로 생리친화적인 것이 특징이다.

아달리무맙과 인플릭시맙은 단일항체 형식의 약물이다. 이들 생물학적제제는 관절 염증을 유발하는 종양괴사인자를 차단함으로써 관절의 손상과 불능을 예방하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삶의 질과 사망률을 개선시킨다.

한편, 생물학적제제는 효과가 높은 반면 결핵 등의 감염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결핵균에 감염된 잠복결핵감염자가 국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1500만명으로 추산(질병관리본부 통계)되는 우리나라는 생물학적제제 선택시 결핵 발현율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지난 2009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에타너셉트(엔브렐)는 다른 생물학적제제에 비해 결핵 발현율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최근 들어, 강직성척추염 환자들의 생물학적제제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가 철폐되면서 환자들이 기간에 관계없이 10%의 본인부담률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평생에 걸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에게 치료의 길을 확대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치료 효과가 높고 안전성이 입증된 생물학적제제 사용이 확대돼 환자들의 증상 완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기 고

아름다운 광주 청소년의 '끼'

최연주

올 해로 6회째 맞는 청소년 최대 축제인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의 일환으로 기성곡 재능 경연대회가 지난 토요일 광천동 버스터미널 유-스퀘어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경연대회는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나이인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39개 팀이 참여하여 저마다 재능과 기량을 뽐냈으며, 그 중 11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영광을 안았다.

본선에 진출한 11개 팀의 청소년들은 또 다른 창작곡 경연대회에서 뽑힌 10개 팀 청소년들과 함께 오는 9월 3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2011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본 행사 무대에서 다시 한 번 기량을 뽐내게 된다.

이번 행사는 본선에 진출하기 위한 예선의 성격이었지만 참가자 모두 탁월한 실력으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였고, 2000여 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유-스퀘어광장을 가득 메워 자리를 뜰 줄 모르며 순수한 청소년들의 애교 있는 행사를 즐겼다.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은 음악을 매개로 한 청소년 축제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행사이다.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광주에 미술을 소재로 한 광주비엔날레가 있다면 음악을 소재로 한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 있다.

이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청소년들의 무한한 열정과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보았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공연하는 무대의 청소년과 환호하는 객석의 청소년이 하나가 되어 노래하고 춤추는 젊음의 율동 속에서 창조도시 광주의 행복한 청소년 모습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저 높은 이상을 향한 끝없는 몸짓이었다.

시민이 행복하려면 우선 청소년이 행복해야 한다. 안정된 가정, 즐거운 학교, 질서 있는 사회의 건전한 성장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본인의 소질과 능력을 인정받으며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함으로써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함으로써 가족과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 청소년들은 학업 성적도 매우 우수하다. 몇 년 동안 수능성적이 전국에서 가장 앞선 것을 보면 이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건강한 도시의 안정된 여건에서 공부도 잘하면서 뛰어난 예술적 소질을 계발할 수 있다면 그런 청소년들의 부모는 행복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광주는 전통적 예향의 도시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예술적 끼와 창의적 소질이 가슴속에 면면히 녹아 있다.

그러한 예술적 끼와 소질이 청소년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청소년음악페스티벌 기성곡 재능 경연대회를 통해 확실히 알았다.

타고 난 예술적 소질을 지닌 많은 청소년을 발굴하여 전국적인 스타로 키워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며칠 전 자존심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들을 열광시킨 한류스타 유럽공연이 최초로 프랑스에서 있었다. 이들 공연팀 중 동방신기의 한 멤버가 광주 출신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앞으로 제2 제3의 동방신기 멤버와 같은 청소년이 광주에서 나오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이렇게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발탁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기성세대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다.

오는 9월 3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있을 2011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에 많은 청소년과 시민들께서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멋진 프로그램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해 본다. 창조도시 광주! 행복한 청소년 축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TV 드라마 잘못된 가족 호칭 너무 많다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들에게 정관수술을 권장하면서 산아제한교육을 하던 때가 언제였고, 두 자녀까지만 세제혜택을 주면서 반강제로 산아 제한을 하던 때가 언제였던가 싶다. 최근 들어 다양한 출산장려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참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우리나라 한 가정 평균 신생아 수가 세계 150개 국가 중 149위라는 통계가 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한 가정이 한 자녀만 낳게 된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삼촌 등과 같은 호칭은 책에서만 배우게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

서글픈 현실 앞에 요즘 TV 드라마를 보면 시동생에게 삼촌, 시누이에게 고모, 심지어 시누이 남편에게까지 고모부라고 하며 호칭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혼인을 한 여자가 남편을, 그것도 부모들 앞에서 오빠라고 부른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매우 혼란스럽다.

TV는 국민의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은 비록 나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정녕 TV에서 부르는 호칭이 시대에 따라 그렇게 불러도 된다면 필자는 보기 드물게 시대에 뒤떨어진 맹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건 아닐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시동생이 삼촌이 되고 시누이가 고모가 될 수는 없다. 드라마 제작진들은 좀 더 신중을 기해 더욱 사랑받는 드라마가 되었으면 한다.

▲허선호·광주시 서구 쌍촌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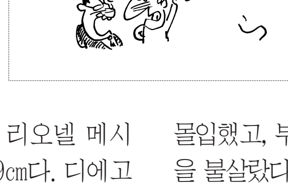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무등산 메시



작은 키로 세상을 호령한 프랑스 황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나폴레옹의 알려진 키는 168㎝. 그는 '내 키는 땅에서부터 재면 가장 작으나 하늘에서 부터 재면 가장 크다'라고 후세사람들에게 키에 관한 명언을 남겼다. 물론 그의 작은 키는 오해라고 하지만 작은 키를 가진 이들에게 나폴레옹은 여전히 상징적인 존재다.

이밖에 유리 가가린은 157㎝, 중국의 지도자였던 등소평은 158㎝이었다. 이처럼 역사 속에 '작은 영웅'들은 많다. 체육계도 마찬가지다. 역대 NBA 현역 선수 중 최단신인 타이론 보거스는 160㎝의 키로 종횡무진 코트를 누볐다.

현역 최고의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역시 169㎝다. 디에고 마라도나는 더 작은 165㎝지만 위대한 축구선수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 한국 프로야구계에도 단신의 '무등산 메시'가 야구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주인공은 KIA타이거즈의 유격수 김선빈. 164㎝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등록된 프로야구 선수 중 가장 작다.

지난 2007년 KIA가 2차 6라운드로 김선빈을 뽑자 야구 관계자들은 "KIA가 뽑을 선수가 없긴 없나 보다"며 안타까워 했다. 당시 화순고(3년) 내야수 김선빈은 가능성은 있지만 작은 키 때문에 '땅콩', '깨' 혹은 '꼬마'로 불리며 프로야구에서는 안된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김선빈의 넓은 수비범위와 강한 어깨, 투수로도 부족함이 없는 자질을 인정한 KIA는 김선빈을 택했다.

김선빈은 이러한 편견을 이겨내고 4년만에 프로야구에 우뚝 섰다. 그는 작은 손 등 신체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훈련에 몰입했고, 부상마저 잊고 출전하는 투혼을 불살랐다. 그래서 김선빈을 보고 '땅콩', '깨'라고 부르지 않고 리오넬 메시를 빗대어 '무등산 메시'라고 부른다.

자신의 핸디캡을 노력과 열정으로 극복하고 최고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무등산 메시' 김선빈의 투혼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AX	222-8005〉	〈FA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AX	227-9500〉	〈FA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